

전남 전동킥보드 사고 큰 폭 증가

지난해 대비 올해 18건 ↑ ...완충장치 없어 인명피해 커 경찰, PM·이륜차 사고 예방 홍보·교육 등 종합대책 시행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전남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시행에 나선다.

2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전남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4천95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270건) 감소했지만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사고는 각각 72%(18건), 17%(67건)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1건) 증가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32%(7건) 늘어났다.

전동킥보드(PM)는 최근에 생긴 이동수단으로 결재 및 이용 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안전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듯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임에

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인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무면허 운전은 물론 헬멧 미착용, 인원을 초과한 2명 탑승행위 등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전동킥보드(PM)·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종합대책은 집중단속과 더불어 홍보·교육 등 다각적인 안전대책으로 추진된다.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전남도교육청·도 내 대학교 등과 협의해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가정 내 교

육으로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관심을 제고한다.

어르신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대한노인협회, 마을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까지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방안과 안전대책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풍년들의 '불청객' 참새 처서(處暑)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들녘은 하루가 다르게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25일 담양군 봉산면의 한 벼논에서 황금들판의 불청객인 참새 무리가 만찬을 즐기다 인기척에 놀라 후다닥 날아오르고 있다. 풍년의 전령처럼 여겨진 참새는 환경 변화로 개체수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벼가 머리를 숙이는 유수기에 집중적으로 날아와 단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 도시 사람들에게겐 한 없이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농민들에게 참새는 아삭하기만 하다. /김영근기자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 31일 문 연다

음식부스 25개 문화예술 점포 10개 등 '다양'

광주 남구의 백운광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스트리트 푸드존'이 오는 31일 개장한다.

남구는 25일 '스트리트 푸드존'이 31일 오후 4시께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개장식 행사에는 감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3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트리트 푸드존은 지난 2020년부터 사업비 26억여원을 투입해 도심 속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됐다.

조성 구간은 남구청 맞은편 모아산부인과 앞에서부터 남광주농협 맞은편까

지 약 310m다.

스트리트 푸드존 부스는 먹거리 점포 25개와 문화예술 점포 10개 등 총 40여 개다.

아시아 음식, 양식류와 중식, 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버스킹과 전시회 등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 등 남구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준비한 공예품과 리사이클링 제품, 청년 작품 전시 등도 진행된다.

/김다인기자

현재 남구에서 마련한 스트리트 푸드존 주차장은 모아산부인과 방향 공터와 푸드존 운영 본부 부근이다. 이곳에 총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다.

남구는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년 2월 중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스트리트 푸드존은 광주·전남에서 찾아보기 힘든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한 특화거리이다"면서 "사람 중심의 문화 광장으로 변모하는 백운광장 일대가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기자

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

전남도교육청은 25일 "2022년 9월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사규모는 총 110명으로 승진 22명(3급 1명, 4급 1명, 6급 3명, 7급 7명, 8급 10명), 전보 40명, 명예퇴직 등 12명, 신규임용 36명 등이다. ▶관련 인사 명단 18면 3급 감사관에는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고재술 고흥평생교육관장을 승진 임용했다.

4급 직위인 시설과장에는 시설과 김의곤 사무관을 승진 임용했다.

도교육청은 김학주 홍보담당관을 공모를 통해 신규임용했다.

또한, 박진수 노사정책과장을 행정과장, 변윤섭 행정과장을 고흥평생교육관장, 한종택 시설과장을 노사정책과장으로 보직 발령했다.

/임재만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0 해질 19:08
달뜨기 04:31 달지기 18:55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50 (아외 건조 좋아요)
- 세차 50 (세차하기 좋은날)
- 운동 90 (준비운동은 충분해)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20-0	목포	01:35	07:22
목포	30-0		13:43	19:11
순천	30-0		08:37	02:45
여수	30-0	여수	21:08	14:39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27/토	(20/28)	(20/26)	(21/27)	(19/27)	(21/23)	(24/29)
28/일	(18/29)	(18/28)	(18/28)	(16/27)	(20/30)	(22/29)
29/월	(20/28)	(20/27)	(19/26)	(19/27)	(21/29)	(25/30)

▶날씨안내 : 국민뉴스1131

“법인 이사장·사무처장 사퇴해야”

조선대 교원노조 주장

조선대 교원노동조합은 김이수 법인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데 대해 25일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는 자료를 내고 “법인과 이사장의 총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 침해와 학사개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이사장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노조는 “법인과 이사회의 학사개입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안을 모색하고, 임시(9월 수시)를 잘 마무리한 뒤 학교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사장이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한 것은 교수들을 쫓아내기 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은 임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사장과 사무처장 퇴진을 위해 법적 투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만기자

송원대 고제철 이사장, 명예기관사 체험

송원대학교 고제철 이사장과 최수태 총장이 명예기관사·역장 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철도특성화 송원대학교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간의 철도 인재양성 및 철도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코레일과 전국보기기술 협력 MOU 체결과 함께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고제철 이사장의 1일 명예 기관사 체험과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의 1일 명예 역장 체험을 광주송정역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행사는 철도특성화 송원대학교와 코레일 광주전남본부간의 철도 인재양성 및 철도관련 정보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코레일과 전국보기기술 협력 MOU 체결과 함께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고제철 이사장의 1일 명예 기관사 체험과 송원대학교 최수태 총장의 1일 명예 역장 체험을 광주송정역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 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